

유청희 집행위원장

1월 31일 제23차 연구소 총회가 열렸습니다. 연구소의 2025년을 함께 돌아보고 2026년 사업 방향을 세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총회에 참석해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회원 덕분에 또 한번 한노보연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2025년을 돌이켜보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맞서 광장에서 퇴진투쟁을 하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광장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민주주의를 외쳤고, 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런 한편 연구소는 계획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갔는데요. 경제위기 시기 여성,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안전보건 권리에 집중했습니다.

중장기 과제로서 기후정의운동에서 노동자 건강권을 고민해온 지난 몇 년의 결과를 현장과 함께한 워크숍을 열어 우리의 고민을 풀어냈습니다. 역시 중장기 과제인 보듬는학교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성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한 해였습니다.

2025-2026, 2년의 사업 방향 중 두 번째 해인 2026년. 올해는 집중사업으로서 개혁적 국면, 안전보건 권리 진전을 위한 활동, 현장 활동가들의 활동을 엮어내는 1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장기 과제로서, 기후정의와 노동자건강권, 보듬는학교 사업과 함께 ‘아프면 쉴 권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일하는 사람 모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그리고 ‘노동자 자살과 정신건강’을 주제로 노동자 정신건강에 유해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제까지 해온 활동을 올해도 꾸준히 하며,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우리의 고민과 제안을 이 사회에 계속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과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활동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몸과 삶에 기반한 ‘일터 민주주의’ 정착을 향해 회원 여러분과 열심히 활동하고 투쟁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세요!